Unlikely heroes – 8. Uriah the Hittite – Sermon Notes
Title: A true man of integrity
Scripture: 2 Samuel 11:6-17
Date preached: May 19th 2024

Scripture: 2 Samuel 11:6-17

6 Then David sent to Joab, *saying,* "Send me Uriah the Hittite." And Joab sent Uriah to David. 7 When Uriah had come to him, David asked how Joab was doing, and how the people were doing, and how the war prospered. 8 And David said to Uriah, "Go down to your house and wash your feet." So Uriah departed from the king's house, and a gift *of food* from the king followed him. 9 But Uriah slept at the door of the king's house with all the servants of his lord, and did not go down to his house. 10 So when they told David, saying, "Uriah did not go down to his house," David said to Uriah, "Did you not come from a journey? Why did you not go down to your house?" 11 And Uriah said to David, "The ark and Israel and Judah are dwelling in tents, and my lord Joab and the servants of my lord are encamped in the open fields. Shall I then go to my house to eat and drink, and to lie with my wife? *As* you live, and *as* your soul lives, I will not do this thing."

12 Then David said to Uriah, "Wait here today also, and tomorrow I will let you depart." So Uriah remained in Jerusalem that day and the next. 13 Now when David called him, he ate and drank before him; and he made him drunk. And at evening he went out to lie on his bed with the servants of his lord, but he did not go down to his house.

14 In the morning it happened that David wrote a letter to Joab and sent *it* by the hand of Uriah. 15 And he wrote in the letter, saying, "Set Uriah in the forefront of the hottest battle, and retreat from him, that he may be struck down and die." 16 So it was, while Joab besieged the city, that he assigned Uriah to a place where he knew there *were* valiant men. 17 Then the men of the city came out and fought with Joab. And *some* of the people of the servants of David fell; and Uriah the Hittite died also.

6 그래서 다윗은 헷 사람 우리아를 자기에게 보내라는 전갈을 요압에게보냈다. 7 우리아가 왔을 때 다윗은 그에게 요압과 군사들의 안부와 전황을 물었다. 8 그런 다음 다윗은 그에게 집에 가서 쉬라고 말하고 그의 집으로 선물도 보냈다. 9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그 날 밤을 궁전 경비병들과 함께 궁전 문 앞에서 보냈다. 10 다윗은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그를 불러 물었다. "무슨 일이냐? 오랫동안 너는 아내와 헤어져 있었는데 어째서 어젯밤에 집으로 가지 않았느냐?" 11 "우리 군대가 지금 전쟁중이며 여호와의 궤도 그들과 함께 있고 나의 지휘관인 요압장군과 그 부하들이 빈 들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같이 잘 수 있겠습니까? □ □ □□ □□□ □□□□□ □□□□ □□ □□ □□ □□ □□□□."

12 "그렇다면 오늘 밤은 여기서 머물러라. □ □ □□ □ □□ □□□□ □□ □□ □□ □□" 그래서 우리아는 그 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13 다윗은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여 먹 고 마시며 그를 취하게 했으나 우리아는 그 날 밤도 집에 가지 않고 궁전 정문의 경비실에서 경비병들과 함께 잤다.

14 그 다음 날 아침에 다윗은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전해 주라고 우리아에게 주었는데 15 그 편지에서 다윗은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격전지에 투입시켜 최전방에서 싸우게 하고 다른 병력은 후퇴시켜 그가 거기서 죽게 하라고 요압에게 지시하였다. 16 그래서 요압은 적군의 성을 포위 공격 할 때 적의 가장 강한 반격이 예상되는 지점에 우리아를 배치시켰다. 17 적이 그 성에서 나와 요압과 싸울 때에 우리아는 결국 적의 반격을 받아 몇몇 다른 이스라엘군과 함께 그 곳에서 전사하였다.

Introduction and review

The subject for our study today is Uriah the Hittite. He is arguably one of the best known of our unlikely heroes. In fact its quite obvious to anyone having read his story that he is a man of great honour and integrity. He was treated as we shall see in a quite shameful way. But that is to come

later. Before we look at Uriah let's quickly review last week's unlikely hero.

Last week we considered the story of Rhoda. We read about her in the 12th chapter of the book of Acts. She is mentioned just once by name and as a result we know almost nothing about her. We do know that she was a Christian and part of the early church in Jerusalem. This church met and worshipped in the house of Mary, the mother of John Mark. He would later go on to accompany Paul and Barnabas on their first missionary journey. Rhoda may have been a family member, but in all probability was a servant working for Mary.

Rhoda's story occurs at a time when things were beginning to get difficult for the early church. It was true that from the beginning there was always some hostility from the Jewish elites. They saw Christianity as a dangerous cult that had branched off from Judaism. However opposition against the church was occasional at best. But around this time King Herod Agrippa the first became involved. His motivations for doing so are much debated. Its possible that as a devout or orthodox Jew he sought to defend Judaism against this “false” belief system. Equally, it may have been because he wanted to curry favour with the Sanhedrin.

Whatever his motivations were he first arrested and beheaded the Apostle James. This brutal act was very well received by the Sanhedrin. So Agrippa went further and arrested and imprisoned Peter. He was locked away probably in the formidable surroundings of the Antonia Fortress. Agrippa is keen to ensure that Peter cannot escape, and so he chains him between two soldiers and posts a further two at the door.

On the evening before he was due to be executed Peter gets a surprise visitor. An angel appears and tells him to arise. Confused and groggy from sleep Peter does as the angel commands. His chains fall off, and he is led through the prison to the iron outer door which swings open automatically as they approach. The angel leads Peter down a street before vanishing. At this point Peter comes to his senses. He knows that soon the alarm will be sounded, and they will come out looking for him. He must find a place to take refuge. He makes his way to Mary's house. This was where the early church met and where they had gathered to pray for God to intervene and deliver Peter.
When he arrives he knocks at the door to the gate and waits. It is Rhoda who is sent to find out who it is. When she hears Peter's voice she is overjoyed. Their prayers had been answered. Without opening the gate she rushes back inside to tell everyone that Peter is here. No one inside believes her. In fact they think that she has lost her mind and is talking absolute nonsense. She remains insistent that it is Peter, so they tell her that is is most likely Peter's ghost. Even this will not deter her. Eventually her insistence pays off and Peter is admitted into the house.

So Rhoda was nominated onto our list of unlikely heroes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ly she truly believed in the power and effectiveness of prayer. And secondly she remained steadfast and insistent upon the truth even when people thought she was acting strangely or even crazily.

Today's unlikely hero is Uriah the Hittite.

오늘 설교의 주제는 헷 사람 우리아입니다. 그는 우리의 예상치 못한 영웅 중 분명히 가장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읽은 사람은 누구나 우리아가 명예와 진실함을 지닌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는 상당히 치욕스러운 대우를 받았습니다. □□□□□□ □□□□□□□. 우리아를 보기 전에 지난 주의 예상치 못한 영웅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에 로데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 12 장에서 나옵니다. 그녀의 이름은 딱 한 번만 언급되기 때문에 그녀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인이었고 예루살렘 초대 교회의 일원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가는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선교 여행에 동행했습니다. 로데는 가족이었을 수도 있지만 아마도 마리아를 위해 일하는 하녀이었을 것입니다.

로데의 이야기는 초대교회의 상황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던 때에 일어났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유대 엘리트들이 교회에 대한 적대감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유대교에서 파생된 위험한 이단으로 여겼으나, 교회에 대한 박해는 가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때쯤에 헤롯 아그립바 1 세가 개입하였습니다. 그가 왜 교회를 박해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 독실한 정통 유대인으로서 그는 기독교를 "거짓" 신앙이라 여기고 유대교를 방어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시에 그는 산헤드린의 환심을 사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동기가 무엇이었든 그는 사도 야고보를 체포하고 참수했습니다. □ □□□□ 그의 이 잔인한 행위를 기뻐했습니다. 그러자 아그립바는 더 나아가서 베드로를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경비가 삼엄한 안토니오 요□□□□ □□□□. 아그립바는 베드로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그를 두 명의 군인 사이에 결박하고 문 앞에 두 명을 더 배치합니다.

처형되기 전날 저녁, 깜짝 방문객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베드로는 혼란스러운 상태로 천사가 명령한 대로 합니다. 그의 사슬이 풀리고, 그가 감옥을 빠져 나와 바깥 철문에 도착하자 그 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천사는 베드로를 한 거리로 인도한 후에 사라집니다. 이 순간 베드로는 정신을 차립니다. 그는 곧 그의 탈출을 알아채고 사람들이 그를 잡으러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피할 곳을 찾아야 합니다. 그는 마리아의 집으로 향합니다. 이곳은 초대교회가 모여서 하나님께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던 곳이었습니다. 그가 도착한 후 대문을 두드리고 기다립니다. 문을 누가 두드리는지 알기 위해 나온 사람이 로데입니다. 그녀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매우 기뻐합니다.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지도 않고 안으로 달려가서 모두에게 베드로가 문 밖에 있다고 알립니다. 집 안에 있는 누구도 그녀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제정신이 아니고 완전히 말도 안되는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계속해서 그 사람이 베드로라고 주장하자 그들은 베드로의 영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로데는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의 끈기가 결실을 맺고 베드로는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로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예상치 못한 영웅에 지명되었습니다. 첫째, 그녀는 기도의 능력과 효과를 진정으로 믿었습니다. 둘째,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이 이상하다고 심지어 미쳤다고 생각할 때에도 확고부동하고 진실을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오늘의 영웅은 헷 사람 우리아입니다.

The Book of 2nd Samuel

We find ourselves today in the book of second Samuel. You may be interested to learn that originally there was no division. It was just the Book of Samuel in the Hebrew bible. The translators of the Septuagint were the first to divide the book into two, and we have maintained that tradition to this day. First Samuel covers a period of approximately 100 years from 1100 BC to 1000 BC. It deals with Israel's transition from being led by judges to being led by a king. In the opening chapters we read the account of Israel's first king; Saul. Later we are introduced to a young man who will go on toe become Israel's greatest monarch; David. The second part of the book deals with David's trials and preparations to be the future king.

Second Samuel covers the 40 year reign of David as king. The book can be divided into two main sections. The first part contained in chapters 1 to 10 outline David's successes or triumphs. The second part, chapters 11-20 detail David's troubles. The final section, the appendix contained in chapters 21 to 24 provides us with further details of David's reign. Our interest today is on the terrible acts of sin that brought about David's fall and decline. Before we get into that however let's briefly cover the events that precede the troubles.

오늘 이야기는 사무엘하에 나옵니다. 원래 사무엘서는 상 하로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사무엘서 the Book of Samuel 한 권이었습니다. 칠십인역의 번역자들이 처음으로 이 책을 둘로 나누었고, 오늘날까지 그것

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상 무엘상은 기원전 1100 년부터 기원전 1000 년까지 약 100 년의 기간을 다룹니다. 이는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기에서 왕의 통치로 바뀌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초반부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젊은이, 다윗이 소개됩니다. 책의 후반부는 다윗의 시련과 미래의 왕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을 다룹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으로 통치한 40 년을 기록합니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10 장까지는 다윗의 승리triumphs 에 관한 기록입니다. 두 번째 부분인 11-20 장은 다윗의 고난troubles 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마지막 부분 21- 24 장까지의 부록에는 다윗의 통치에 대한 부가적인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타락과 쇠퇴를 가져온 다윗의 죄된 행동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살펴볼 사건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The historic context
Let's take a few moments to set up our study for today. What has happened to get us to this point in the story?

Second Samuel begins with David receiving news of the death of Saul and his sons. Despite the difficulties he has had with Saul he is greatly saddened at his death. He declares a time of mourning (chapter 1). Soon afterward, David is crowned king over Judah, while Ish-bosheth, one of Saul's surviving sons, is crowned king over Israel (chapter 2). Quite understandably a civil war follows between the house of David and the house of Saul. The conflict comes to an end when Ish-bosheth is murdered. The Israelites ask David to reign over them as well (chapters 4-5). The nation is united.

David moves the country's capital from Hebron to Jerusalem and later moves the Ark of the Covenant (chapters 5-6). David's plan to build a temple in Jerusalem is vetoed by God. That task will fall to Solomon. It is a great time for God's people. David leads Israel to victory over many of their enemies. He also shows great kindness to the family of Jonathan by taking in Mephibosheth, Jonathan's crippled son (chapter 9). The section detailing triumphs ends with David defeating the Ammonites (chapter 10). That neatly brings us to chapter number 11. This chapter as we noted before marks the beginning of David's troubles. Let's look now at chapter 11.

역사적 배경

먼저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잠시 고려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사건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사무엘하는 다윗이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다윗은 사울로 인해 겪었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을 몹시 슬퍼합니다. 그는 애도의 때를 선포합니다(1 장). 얼마 지나지 않아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사울의 아남은 아들인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2 장). 당연히 다윗의 편과 사울의 편 사이에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보셋이 살해되면서 갈등은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에게도 자신들의 통치를 요청합니다(4-5 장). 나라가 하나로 연합되었습니다. 다윗은 나라의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 다음 나중에 언약궤를 옮깁니다(5-6 장).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려는 다윗의 계획은 하나님에 의해 거부되었습니다. 그 임무는 솔로몬이 맡을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좋은 시절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이끌고 적들에 대해 수많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그는 요나단의 다리 저는 아들 므비보셋을 데려옴으로써 요나단의 가족에게 큰 은혜를 베풉니다(9 장). 승리를 자세히 설명하는 부분은 다윗이 암몬 사람들을 물리치는 것으로 끝납니다(10 장). 그리고 나서 11 장이 이어지는데 이 장부터 다윗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이제 11 장을 살펴보겠습니다.

Chapter 11

Chapter 11 begins by telling us that it was spring. This was the time when rains have ended, the roads are dry and passable and the weather has warmed up. It was therefore the traditional time for armies to march off to war. The spring harvests provided food for men and fodder for the horses

whilst they are out on campaign. As king of Israel it was David's place to be at the head of the army. But the writer tells us that he stayed in Jerusalem and sent his commander Joab out with the army. The implication here is that David was negating his responsibilities as ruler and acting unwisely. Had he fulfilled his duties and done what was expected think of all the misery he could have avoided. How often we fall into trouble when we are idle, or not doing what we are supposed to be doing.

How did David spend his time whilst his army is out destroying the people of Ammon and besieging Rabbah? He was it seems taking it easy and enjoying his leisure time. It appears as if instead of caring for the needs of the state, he was more interested in personal pleasure.

One day he's taking a nap in the late afternoon. The text suggests that David had a patio suite prepared on the roof of his palace. This came complete with a shaded bed. Rooftop rooms or suites like this were common in the ancient Near East because they tended to be cooler, catching as they did the afternoon breeze. When he awakes from his nap he goes for a walk upon the roof. From this vantage point he spots a beautiful woman bathing. This woman was the wife of today's unlikely hero, this was Uriah's wife Bathsheba. There has been a lot said about this incident down through the centuries. There are many potential gaps in the narrative that people have been happy to fill in various ways. For example many have wondered if she was deliberately bathing in an open or provocative way. Was she not aware that she was visible from the palace? Possibly she was, so maybe she did act immodestly. We should however remember that the palace was the highest building in that area and from the roof top you could look down into the courtyards or roofs of all the surrounding buildings. Bathsheba must have been aware of this fact. However she was in her own house and so it wasn't as if she was flaunting herself in public. There is even debate about how much of her body was actually exposed. Today we shower or bathe in the nude. However in those days, bathing wasn’t always done in the nude. Clothes or sarongs were sometimes worn to avoid being totally exposed. The Bible does not clearly say if Bathsheba was nude or partially clothed.

Whatever David sees captivates him. We must be very clear on the precise nature of the problem here. It's likely that suddenly seeing a beautiful woman bathing was a surprise to David. He had been sleeping and didn't expect to look down and see Bathsheba. At this moment he should have averted his eyes and left the roof. So his sin came in looking again, and allowing that look to develop into lustful desire. It is an issue for many men and some women today. We cannot really avoid in today's hyper sexualised world seeing people and images that are designed to titillate or arouse our passions. We must therefore learn how to deal with such images. The best defence is not to allow our eyes or minds to rest or linger on things purposefully designed to excite us. We need to cultivate the habit of letting our eyes bounce off things that can lead us into sinful thinking. David sadly did not do this. He allowed temptation to grow into sin.

David makes some enquires to find out the identity of this stunning woman. He is informed that this is Bathsheba, the daughter of Eliam and the wife of Uriah the Hittite. Discovering that she was married ought to have brought this whole incident to an end. To also learn to whom she was married also ought to have caused him to stop. Uriah the Hittite belonged to David’s elite corps of loyal fighters known as “the thirty.” They were his equivalent of the Navy Seals or the SAS. A division of his strongest most valiant and loyal supporters. Why would you want to make an enemy of a warrior like this? David sadly is not deterred, he had decided he must have Bathsheba. He sends for her and then has sexual relations with her. The whole sorry episode is concluded in just one verse.

4 Then David sent messengers, and took her; and she came to him, and he lay with her, for she was cleansed from her impurity; and she returned to her house.

It leaves us again with lots of unanswered questions. Was she taken by force, was this rape, or was she a willing participant? Was she flattered by David's attention? Did she have the ability to refuse the kings request or not? Certainly the king abused his royal power. He had no right to break the

covenant of marriage between Bathsheba and Uriah. We do not in this passage read that Bathsheba was taken by physical force into the palace through craft or violence. The bible is quite clear when incidents of rape occur. For example in 2nd Samuel chapter 13 we read about Amnon's rape of Tamar. The language and wording used here is very different to the story of David and Bathsheba. Amnon who was stronger, “forced” himself upon Tamar. That's not what we read here. It appears that Bathsheba came at David's summoning without any hesitation, and offered no resistance to his lustful desires. This does not excuse David, or minimise what he did. He was primarily the guilty party here, but it also means that Bathsheba is not blame free in this incident.

Following this one night stand Bathsheba returns home. However she soon discovers that she is pregnant. The writer includes the very important detail **for she was cleansed from her impurity**. Or to put it in more modern language. Bathsheba had recently had her menstrual period. This meant that Uriah could not have been the father. The father was David. Upon hearing this news David knows he must act. There is a great deal at stake here.

David was a very popular and well regarded ruler. He probably could have forcibly taken Bathsheba from Uriah and stayed in power. Israel did have strict laws concerning adultery. If found guilty both parties could face the death penalty (Lev 20:10; Deut 22:22). However it is unlikely that any court in Israel had enough authority to order the king’s execution. So what David seems most worried about is the public shame and humiliation he faces. David we should not forget had risen to power based upon his reputation as a good and pure man. If people learned about his adulterous act with Bathsheba his reputation would be seriously tarnished. So he sought to conceal his sin. This is how most unrepentant sinners behave. Instead of coming before the Lord and confessing our sin we seek to hide it. It's a futile endeavour of course because nothing can be hidden from God. Let us look now at verse 6.

사무엘하 **11 장**

11 장은 이 때가 봄이었다고 알려주면서 시작합니다. 비가 그치고 길이 마르니 통행이 가능하며 날씨도 따뜻해졌습니다. 따라서 이 때는 군대가 전쟁에 나서는 전통적인 시기였습니다. 봄에 이루어지는 수확은 전쟁을 하는 동안 군인들과 말들에게 필요한 먹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군대의 선두에 서는 것이 그의 의무였습니다. 그러나 성경 저자는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그의 령관 요압을 군대와 함께 보냈다고 기록합니다 . 이는 다윗이 통치자로서의 책임을 게을리하고 현명하지 못하게 행동했음을 암시합니다. 만약 다윗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왕으로서 할 일을 했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모든 불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얼마나 자주 문제가 생깁니까?

다윗은 그의 군대가 암몬 사람들을 멸하고 랍바를 포위하는 동안 어떻게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는 한가롭게 여가를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나라가 필요로 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쾌락에 더 관심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그는 늦은 오후에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그의 궁전 지붕에 테라스 스위트patio suite 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거기에 그늘진 침대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옥상 객실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오후의 미풍 덕분에 더 시원했기 때문입니다. 낮잠에서 깨어난 그는 옥상에서 거닐어 다닙니다 . 거기에서 그는 목욕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합니다. 이 여자는 오늘의 예상치 못한 영웅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 사건에 관해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양하게 제시한 이야기에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의도적으로 공개적 또는 도발적인 방식으로 목욕을 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녀는 궁전에서 자신이 보이는 것을 몰랐을까? 알았겠지, 그래서 정숙하지 못하게 행동했을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는 궁전이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고 궁전 옥상에서 주변에 있는 모든 건물의 안뜰이나 지붕을 내려다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밧세바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집에 있었기 때문

에 공개적으로 자신을 과시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녀의 몸이 실제로 얼마나 노출되었는지에 대한 논쟁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옷을 벗고 사워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항상 알몸으로 목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완전히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때때로 옷이나 얇은 천을 입었습니다. 성서는 밧세바가 벌거벗었는지 옷을 걸치고 있었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다윗이 본 것이 무엇이었든지 그것은 그를 사로잡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뜻밖에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본 다윗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나 거닐던 그가 밧세바를 볼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그는 눈을 돌리고 지붕을 떠났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죄는 그녀를 바라보고 더욱 진행하여 음욕적인 욕망으로 치달은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많은 남성들과 일부 여성들의 문제입니다. 과도하게 성적인 오늘날의 세상에서 열정을 자극하기 위해 고안된 사람들과 영상을 보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이미지를 다루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최선의 방어는 우리를 자극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고안된 것들에 우리의 눈이나 마음이 머무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스러운 생각으로 인도하는 것들에 눈길을 주지 않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혹이 죄로 자라도록 허용했습니다.

다윗은 이 아름다운 여성이 누구인지 사람을 보내 알아보게 합니다. 그녀가 엘리암의 딸이자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안 순간 다윗은 이 모든 것을 멈췄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누구와 결혼했는지 알았을 때 다윗은 또한 단념해야 했습니다. 헷 사람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용사들로 구성된 다윗의 정예 부대 "삼십인the thirty"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Navy Seals 또는 SAS 와 비슷했습니다. 그의 가장 강력하고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지지자들로 구성된 부대입니다. 누가 이런 용사를 적으로 삼겠습니까? 하지만 슬프게도 다윗은 단념하지 않고 밧세바를 차지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데려오게 하고 그녀와 성관계를 갖습니다. 이 유감스러운 전체 이야기가 다음 단 한 구절로 끝납니다.

4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는 여기서 또다시 답이 없는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강제로 끌려갔나요, 강간이었나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갔을까요? 그녀는 다윗의 관심에 기뻐했을까요? 그녀는 왕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처지에 있었나요? 다윗 왕은 자신의 왕권을 확실히 남용했습니다. 그는 밧세바와 우리아 사이의 결혼 언약을 깨뜨릴 권리가 없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밧세바가 술책이나 폭력 등의 물리적 힘에 의해 궁전으로 끌려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강간 사건이 발생할 때 매우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하 13 장에서 암논이 다말을 겁탈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거기에서 사용된 언어와 표현은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와 매우 다릅니다. 다말보다 힘이 센 암논은 억지로forced 다말과 동침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과는 사뭇 다릅니다. 밧세바는 다윗의 부름에 주저하지 않고 왔고 그의 육적인 욕망에 저항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것은 다윗을 변명하거나 그가 한 일을 축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이 사건에서 주범은 다윗이지만 밧세바도 무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룻밤을 보낸 후 밧세바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녀는 곧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자는 **그녀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라는 매우 중요한 세부 사항을 포함합니다. 좀 더 현대적인 언어로 표현하자면 밧세바는 최근에 생리를 했습니다. 이는 우리아가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윗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행동에 나서야 함을 깨닫습니다. 많은 것이 걸려 있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다윗은 매우 인기 있고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우리아에게서 밧세바를 강제로 빼앗고도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간음에 관한 엄격한 법이 있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양측 모두 사형에 처해집니다(레 20:10; 신 22:22). 그러나 이스라엘의 어떤 법정도 왕의 처형을 명령할 만한 권한이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그가 직면할 공개적인 수치와 굴욕입니다. 다윗이 선하고 순수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바탕으로 권력에 오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사람들이 그가 밧세바와 간음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의 평판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애썼습니다. 대부분의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이 이런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는 대신 그것을 숨기려고 노력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헛된 노력입니다. 6 절을 보겠습니다.

6 Then David sent to Joab, *saying,* "Send me Uriah the Hittite." And Joab sent Uriah to David.

David devises a cunning plan. The first thing to do is to recall Uriah from the battle-field. Let's take a few moments to outline what we know about today's unlikely hero, Uriah. Uriah's name means "light of Yahweh" or "flame of God." He was a Hittite who worshipped the God of Israel.
The Hittites were the descendants of Heth, a descendant of Noah's son, Ham (Genesis 10: 1–6). In Genesis 15:20 we read that the land of the Hittites was part of the promised land for the Israelites. How Uriah came to leave his homeland and become one of David's elite soldiers is unknown. It's possible that he was one of those who surrendered and joined the Israelites after the Hittites were conquered and displaced from their land (1 Samuel 11:3). He clearly was more than just a regular soldier. In 2 Samuel chapter 23 we read about David's 37 mighty men. These men were lauded and celebrated for their great courage and bravery. They were immortalised for having accomplished great military deeds. Last on that list we read about Uriah the Hittite (2 Sam 23:39).

So when we put all of these things together we are left to conclude that Uriah was a brave warrior, not to mention a trustworthy and dependable man of courage, devotion and loyalty. When he is summoned to go to David his king he instantly obeys the order. Let us read on.

6 그래서 다윗은 헷 사람 우리아를 자기에게보내라는 전갈을 요압에게보냈다.

다윗은 교활한 계획을 세웁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오는 것입니다. 오늘의 영웅인 우리아(Uriah)에 대해 알려진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우리아의 이름은 "여호와의 빛" 또는 "하나님의 불꽃"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헷 사람이었습니다. 헷 족속은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인 헷의 후손이었습니다(창 10:1~6). 창세기 15 장 20 절에서 헷 족속에게 속한 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된 땅의 일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아가 어떻게 고국을 떠나 다윗의 정예 군인이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는 헷 족속이 정복되어 그들의 땅에서 쫓겨난 후에 항복하고 이스라엘에 합류한 사람들 중 한 명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ㅁㅁ 11: 3). 그는 평범한 군인 그 이상이었습니다. ㅁ□□□ 23 장에는 다윗의 용사 37 명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의 위대한 용기와 용감함으로 인해 칭찬과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이룬 위대한 군사적 업적으로 인해 불멸의 영예를 얻었습니다. 그 목록의 마지막에 헷 사람 우리아의 이름이 있습니다(ㅁ□ 23:39).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아는 용감한 전사였으며,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용기와 헌신, 충성심을 지닌 사람이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는 다윗 왕에게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즉시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7 When Uriah had come to him, David asked how Joab was doing, and how the people were doing, and how the war prospered.

This is David's attempt to make small talk, and make it appear that everything is normal. He asks Uriah to give him an assessment of how Joab and the soldiers were faring and how the war was going. Uriah may have wondered why he had been summoned to give this report. After all, a lesser soldier or messenger could just as easily have given the king this news. Let us continue.

7 우리아가 왔을 때 다윗은 그에게 요압과 군사들의 안부와 전황을 물었다.

다윗은 사소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모든 것이 정상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다윗은 우리아에게 요압과 군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습니다. 우리아는 왕이 이러한 보고를 듣기 위해 자신을 소환했는지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아니더라도 □ □ □□□ □□□□, □□□ □□ □□□ □□□ □□ □ □□□ □□□□□ 계속합시다.

8 And David said to Uriah, "Go down to your house and wash your feet." So Uriah departed from the king's house, and a gift *of food* from the king followed him. 9 But Uriah slept at the door of the king's house with all the servants of his lord, and did not go down to his house.

We now learn about how David intended to hide or cover up his terrible sin. The problem is self evident. Since Uriah has been away fighting he could not have been in Jerusalem to impregnate his wife. But, if Uriah goes now and sleeps with Bathsheba then he will simply assume that any child conceived is his. It's a simple and effective plan.

David tells him to go to his house and "wash his feet." We may be reading here a Hebrew innuendo that suggests sexual activity. Mentions of the "feet" in the Old Testament are sometimes euphemistic reference to the genitals (Exod.4:25; Deut. 28:57; Isa. 7:20). Perhaps soldiers bantered amongst themselves by saying they were going home to, "wash their feet!" But equally after a long dusty journey in sandals a person would want to wash and clean their feet. Uriah bids the king farewell and leaves. Shortly after a gift of food is sent by the king to Uriah's house. The message is clear enough. Go home, take a bath, enjoy some delicious food and wine and then be intimate with your wife. All of David's problems would then be resolved.

However, David very badly underestimated faithful Uriah's commitment to him. Instead of going home Uriah chose to stay at the entrance to the royal palace sleeping with the other servants and guards. Uriah had been on the front lines. He had almost certainly earned himself some rest and recuperation. But this man of honour will not take it. He will not relax and rest in comfort when his king and adopted nation needed him.

Let us see how David responds to this setback.

8 그런 다음 다윗은 그에게 집에 가서 쉬라고 말하고 그의 집으로 선물도 보냈다. 9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그 날 밤을 궁전 경비병들과 함께 궁전 문 앞에서 보냈다.

이제 다윗이 자신의 끔찍한 죄를 어떻게 은폐하려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문제는 분명합니다. 우리아는 멀리 떨어진 전장에 있었고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를 임신시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아가 지금 밧세바와 동침하면 그는 양태된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간단하고 효과적인 계획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에게 집에 가서 "발을 씻으라"고 말합니다. 이는 아마도 성행위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풍자 문구일 수 있습니다. 구약성서에서 "발"에 대한 언급은 때때로 생식기에 대한 완곡한 표현입니다(출애굽기 4:25; 신명기 28:57; 이사야 7:20). 어쩌면 군인들은 집에 가면서 발을 씻으러 간다고 서로 농담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샌들을 신고 먼지가 많은 긴 여정을 마친 후에는 발을 씻고 깨끗해지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아는 왕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나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왕은 우리아의 집에 음식을 선물로 보냅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집에 가서 목욕을 하고, 맛있는 음식과 와인을 즐기면서 아내와 친밀한 시간을 보내라. 그렇게 한다면 다윗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헌신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입구에서 다른 신하들과 경비병들과 함께 잠을 자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아는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그는 휴식과 회복할 시간을 가질 자격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명예로운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과 자신이 선택한 □□□□ □□□□ □ □ □□ □□□□ □□ □□□□□.

다윗이 자신의 시도가 실패하자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0 So when they told David, saying, "Uriah did not go down to his house," David said to Uriah, "Did you not come from a journey? Why did you not go down to your house?"
11 And Uriah said to David, "The ark and Israel and Judah are dwelling in tents, and my lord Joab and the servants of my lord are encamped in the open fields. Shall I then go to my house to eat and drink, and to lie with my wife? *As* you live, and *as* your soul lives, I will not do this thing."

David is informed that Uriah had not gone to his house. David summons him to find out why he had not. David is amazed. He had assumed that Uriah was a man much like himself. A man who lived to satisfy his own desires and pleasures. But Uriah is not like David. He is a true man of integrity. The Cambridge dictionary defines integrity in the following way.

The quality of being honest and having strong moral principles that you refuse to change

We see this demonstrated in his masterful answer. He begins by talking about the Ark. He was not a Jew remember but in putting this first he shows that he is now a true follower of Yahweh. He is concerned with doing what is best and most pleasing to God. He goes on to tell David that he cannot go home to eat, relax and be with his wife when he knew his fellow soldiers were still at war. How could he possibly enjoy the comforts of home knowing that the men he served with endured hardship on the field of battle. I have never been on a battlefield, and so I do no not from first hand experience the kind of camaraderie that builds up between men who live and die side by side. But I have the quotes of men who do know.

Siegfried Knappe who took past in the second world war wrote,

> *"Men who share combat become brothers, and this brotherhood is so important to them that they would give their lives for one another. It is not just friendship and it is stronger than flag and country."* (Soldat, Reflections of a German Soldier, 1936-1949)

William Manchester a US Marine who fought in the Pacific war was given the option to leave and return home. He writes very powerfully in his memoir about why he could not abandon his comrades.

"Those men on the line were my family, my home. They were closer to me than I can say, closer than any friends had been or ever would be. They had never let me down, and I couldn't do it to them. I had to be with them, rather than let them die and me live with the knowledge that I might have saved them. Men, I now knew, do not fight for flag or country, for the Marine Corps or glory or any other abstraction. They fight for one another. Any man in combat who lacks comrades who will die for him, or for whom he is willing to die, is not a man at all. He is truly damned."

(Goodbye, Darkness: A Memoir of the Pacific War, p.12)

If Uriah had written a memoir he would have said something similar. He concludes with a solemn oath. He will never do such a thing whilst the king lives. David needs a new plan. Let us see what he comes up with next.

10 다윗은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그를 불러 물었다. "무슨 일이냐? 오랫동안 너는 아내와 헤어져 있었는데 어째서 어젯밤에 집으로 가지 않았느냐?" 11 "우리 군대가 지금 전쟁중이며 여호와의 궤도 그들과 함께 있고 나의 지휘관인 요압장군과 그 부하들이 빈 들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같이 잘 수 있겠습니까? ▯ □ □□ □□□ □□□□□ ▯□□□□ □□ □□ □□ □□ □□□□□."

다윗은 우리아가 자기 집에 가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 그 이유를 묻습니다. 다윗은 놀랐습니다. 그는 우리아가 자신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는 사람. 그러나 우리아는 다윗과 같지 않습니다. 그는 참으로 진실한 사람man of integrity 입니다. 케임브리지 사전은 진실함

integrity 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정직하고 결코 변하지 않는 강한 도덕적 원칙을 소유한 성격

우리아의 이러한 특성이 그의 탁월한 답변에서 입증됩니다. 그는 먼저 법궤부터 언급합니다. 우리아는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법궤를 먼저 언급함으로써 그가 여호와의 진정한 추종자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가장 선하고 또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을 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동료 군인들이 아직 전쟁 중인데 집에 가서 먹고 쉬면서 아내와 함께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동료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집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전쟁에 참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나란히 생사를 같이 하는 사람들 사이에 형성되는 동지애를 직접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 그래서 저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제2 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Siegfried Knappe 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전투를 함께하는 □□□□ 형제가 되며, 이 형제애는 너무나 소중해서 그들은 서로를 위해 목숨을 □ □□□ 그것은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 국기와□□□□ 더 강한 것이다." (Soldat, 독일 군인의 회고, 1936-1949)

태평양 전쟁에 참전한 미 해병대원 윌리엄 맨체스터 (William Manchester)는 전장을 떠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는 왜 동료들을 저버릴 수 없는지 그의 회고록에서 매우 강력하게 썼습니다.

"전선에 함께 있는 그□□□□ □ 가족이고 집이었다. 그들은□□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가까웠고, 예전에 있었던 그리고 미래에 있을 그 어떤 친구보다도 더 가까웠다. 그들은 결코□□ 실망시킨 적이 없었고□□ 그럴 수 없었다. □□ 그들이 죽도록□ □□□□□ □□ 그들을 구할 수도 있었으리라는□□□ 알면서□ □□□□ 보다는 그들과 함께 있어야 했다. 그들이 국기 또는 국가, 해병대 또는 영광, 그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 그들은 서로를 위해 싸운다. 전투에서 자신을 위해 죽을 동료가 없거나 자신을 위해 기꺼이 죽고자 하는 동료가 없는□□□ □□□ 아니다. 그는 정말 저주받은 인간이다." (안녕, 어둠. □□□ 전쟁 회고록, p.12)

우리아가 회고록을 썼다면 비슷한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엄숙한 맹세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는 왕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새로운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가 다음에 무엇을 생각해 내는지 봅시다.

12 Then David said to Uriah, "Wait here today also, and tomorrow I will let you depart." So Uriah remained in Jerusalem that day and the next. 13 Now when David called him, he ate and drank before him; and he made him drunk. And at evening he went out to lie on his bed with the servants of his lord, but he did not go down to his house.

David has one final plan. He will invite Uriah to the palace and get him drunk. This he hopes will break Uriah's resolve and that weakened by drink he will surely go home and sleep with Bathsheba. I spoke a moment ago about Uriah's integrity. He will not go home because he is so concerned about his brother soldiers on the front line. He doesn't want to allow himself any pleasure whilst they are suffering. However he doesn't seem to have any qualms about feasting and drinking. David plies him with wine and gets him drunk. However his resolve remains unbroken. He had sworn he would not return home and even drunk he will not back down. Again he sleeps at the palace with the servants. All of David's plans have failed. He must now resort to something far more wicked and desperate. Let us read on and see what he does.

12 "그렇다면 오늘 밤은 여기서 머물러라, □ 일은 내가 너를 전쟁터로 다시 돌려 보□겠다 ." 그래서 우리아는 그 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13 다윗은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여 먹 고 마시며 그를 취하게 했으나 우리아는 그 날 밤도 집에 가지 않고 궁전 정문의 경비실에서 경비병들과 함께 잤다.

다윗에게 마지막 계획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아를 왕궁으로 초대하여 술에 취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아의 결심

이 무너지고 술로 악해진 그는 집에 가서 밧세바와 함께 잘거라고 다윗은 기대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아의 진실함 integrity 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최전선에 있는 동료 병사들을 염려하며 집에 가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이 고통받는 동안 어떤 즐거움도 누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잔치에 참여하고 술을 마시는 데에는 거리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포도주를 권하고 그를 추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맹세했고, 술에 취했지만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는 궁전에서 하인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다윗의 모든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이제 그는 훨씬 더 악하고 절망적인 최후의 수단을 써야 합니다. 계속 읽어보고 그가 무엇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4 In the morning it happened that David wrote a letter to Joab and sent *it* by the hand of Uriah. 15 And he wrote in the letter, saying, "Set Uriah in the forefront of the hottest battle, and retreat from him, that he may be struck down and die."

Isn't this one of the saddest passages recorded for us in scripture. It's a reminder to us all of how desperately wicked we all truly are. David is described as a man after God's heart (1 Samuel 13:14). He accomplished many wonderful things, defeating Goliath, uniting Israel, conquering Jerusalem and penning many beautiful psalms. And yet for all his goodness he was capable of the most dastardly wickedness.

Uriah cannot be broken. Therefore the only solution, as David sees it is to kill him. He writes a note informing his military commander Joab what he wants done. Let's be honest and clear about this. David is arranging for Uriah's murder. Uriah is to be engaged in a fierce battle. As a powerful warrior he would often lead the charge followed by his men. However on this occasion, at the critical moment, perhaps at a given signal the men are to withdraw leaving Uriah alone fighting. In such a situation without the support and back up of other warriors he will surely be cut down. The letter is to be carried back to Joab by Uriah. So to put it bluntly Uriah is carrying his own death warrant.

Some have wondered why he didn't look at the letter on the journey. There are a number of ways we can answer this. Firstly, it's entirely possible that he was illiterate. He simply could not read the note. Secondly the letter may have been sealed by wax. This detail is not included in the text but it was common for important, or sensitive documents to be sealed. Thirdly we should not forget that Uriah was a man of integrity. Why would he look at something not intended for him. And fourthly and finally he had no reason to suspect that his king wished him ill intent. He was a brave and loyal soldier why would his king intend him harm.

He therefore successfully delivers the letter to Joab. Let's now see how this whole sorry episode concludes.

14 그 다음 날 아침에 다윗은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전해 주라고 우리아에게 주었는데 15 그 편지에서 다윗은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격전지에 투입시켜 최전방에서 싸우게 하고 다른 병력은 후퇴시켜 그가 거기서 죽게 하라고 요압에게 지시하였다.

이 부분은 성경 기록 중 가장 슬픈 구절 중 하나가 아닐까요? 이는 우리 모두가 실제로 얼마나 절망적으로 사악한지 □□□□□□□.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13:14). 그는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연합시키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여러 아름다운 시편을 기록하는 등 많은 놀라운 일을 성취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선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장 비열한 악행을 저지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아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유일한 해결책은 그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는 군대 사령관 요압에게 자신이 원하는 일을 알리는 편지를 씁니다. 이에 대해 솔직하고 분명하게 말하자면 다윗은 우리아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아는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될 것입니다. 용감한 전사로서 그는 종종 그를 따르는 부하들을 이끌고 돌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아마도 신호를 하면 병사들은 우리아를 홀로 남겨두고 철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병사들의 도움과 지원이 없다면 그는 반드시 쓰러질 것입니다. 우리아가 그 편지를 요압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아는 자신의 사형 영장을 들고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왜 가는 도중에 편지를 보지 않았는지 궁금해합니다. 이에 대한 답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가 글을 몰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랬다면 그가 그 편지를 읽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둘째, 편지가 왁스로 봉인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중요하거나 민감한 문서를 봉인하는 것은 일반적이었습니다. 셋째, 우리아가 잔살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에게 쓴 편지가 아닌데 왜 그것을 보겠습니까? 그리고 넷째이자 마지막으로 그는 그의 왕이 자신에게 해를 끼칠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군인이었는데 왜 그의 왕이 그를 해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하여 그는 요압에게 편지를 성공적으로 전달합니다. 이 유감스러운 에피소드가 어떻게 끝나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16 So it was, while Joab besieged the city, that he assigned Uriah to a place where he knew there *were* valiant men. 17 Then the men of the city came out and fought with Joab. And *some* of the people of the servants of David fell; and Uriah the Hittite died also.

The note presented Joab with a difficult quandary. Uriah was known to be a loyal and brave fighting man. If Joab followed David's exact orders it meant informing other soldiers of what was to happen. They would need to be informed of the plan so that they knew to withdraw at the given signal. They would know therefore that their leader had willingly betrayed one of his own best men. As we noted before fighting men develop unshakeable bonds with one another. Soldiers do not withdraw and leave their comrades to die alone. So if Joab insisted upon doing it David's way he would lose the trust of his men. He therefore devises his own strategy which will accomplish what David wanted, but not lose him the trust of his men.

When the Israelites are besieging the city he sends Uriah's unit to a place where the battle was particularly fierce. A place where the odds of survival were very low. This resulted in not only Uriah but also an additional number of other men being killed. This means that David was also responsible for their deaths too.

As you probably know this was just the beginning of David's troubles. His adressed sin resulted in great misery and unhappiness not just for him, but also for his family and even the nation. David paid very dearly for his sin.

David's life provides us with a vital lesson on the devastating consequences of sin. Sin, we should not forget always result in serious damage to our fellowship with God. We cannot be close to our Heavenly Father with sins coming between us. Sin may also impact is in other ways. If not dealt with, or even indulged ongoing sin may lead to sickness, ruin and even premature death. Therefore I urge you to flee from sin when it creeps upon you. If you do succumb, as we all do let us go to the Lord in prayer and confess where we have transgressed. We have His assurance that in Christ's blood we are forgiven. Our fellowship with God is restored. We know from scripture that this is what David did.

But our focus here is Uriah. A man who showed himself to be a loyal and devoted man of honour and integrity. He was a foreigner who had come to Israel and devoted himself to that nation and to serving Yahweh. He had proven himself on the battle-field and shown that he was a mighty warrior. He actions show us that he was a dependable man of conviction. He could have indulged whilst he was a away from the front lines. Who would ever have found out? But his moral code told him it was wrong. He should not enjoy life whilst his “brothers” were suffering. He also models great resolve. David tried to tempt him to yield or bend but Uriah would not be swayed. For all these reasons I nominate Uriah as an unlikely hero. Before we conclude by looking at some things we can learn from today's passage let me leave you with one interesting revelation.

Uriah gets one mention in the New Testament. Let me take you to Matthews genealogy of the Lord Jesus.

5 Salmon begot Boaz by Rahab, Boaz begot Obed by Ruth, Obed begot Jesse, 6 and Jesse begot David the king. David the king begot Solomon by her *who had been the wife* of Uriah. (Matt 1:5-6)

There is some dispute about the inclusion of Uriah here but isn't it interesting that he is included. He is the only non-blood relation named. Why mention him? It was possibly to highlight that he was a non-Israelite. It demonstrates that right from the very beginning God had a heart for Gentile peoples. They were never excluded from His plan of salvation. But I also think he's included to remind the Jews of what a heroic man he had been. We forget our heroes at our great peril. They were then to remember this Hittite. This former enemy of their people who had come to their nation, fought bravely on their side and been betrayed and murdered by their greatest king.

Let us bring things to a close by looking at what we can learn from Uriah.

16 그래서 요압은 적군의 성을 포위 공격 할 때 적의 가장 강한 반격이 예상되는 지점에 우리아를 배치시켰다. 17 적이 그 성에서 나와 요압과 싸울 때에 우리아는 결국 적의 반격을 받아 몇몇 다른 이스라엘군과 함께 그 곳에서 전사하였다.

그 편지는 요압을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합니다. 우리아는 충성스럽고 용감한 전사였습니다.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려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른 군인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계획에 따라 신호가 주어졌을 때 병사들이 철수하려면 그들이 미리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가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 한 명을 고의로 배신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전우들은 서로 흔들리지 않는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동료 전우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고 후퇴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요압이 다윗이 원하는대로 행한다면 그는 부하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다윗이 원하는 것을 달성하면서도 그의 부하들의 신뢰를 잃지 않을 자신만의 전략을 짭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이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 요압은 우리아의 부대를 전투가 특히 치열한 곳으로 보냅니다. ▯ □ □□□ 확률이 매우 낮은 곳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병사들도 더 죽었습니다. 이는 다윗도 그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이것은 다윗의 고난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저지른 죄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심지어 국가에도 큰 비참함과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 매우 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다윗의 삶은 죄가 가져오는 파괴적인 결과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죄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교제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 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죄는 다른 방식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 올바르게 대처하지 않거나 죄 속에 빠진 삶을 살면 질병이 생기거나, ▯ □ 망치거나, 심지어 일찍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당신에게 다가올 때 죄로부터 도망치기를 권고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만약 죄를 짓는다면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합시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됩니다. 우리는 다윗도 이렇게 했다는 것을 성경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초점은 우리아입니다. 충성스럽고 헌신적이며 명예롭고 잔실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와서 그 나라와 여호와를 섬긴 헌신적인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자신을 입증했고 강력한 전사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그가 확신에 찬 믿음직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최전선에서 떨어져 있는 동안에 마음껏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들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도덕적인 잣대로는 그것은 잘못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전우들"이 고통받는 동안 인생을 즐길 수 없습니다. 그는 또한 대단한 결단력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굴복하도록 유혹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이유로 저는 우리아를 예상치 못한 영웅으로 지명합니다. 오늘 본

문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고 끝내기 전에 흥미로운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아는 신약성경에서 한 번 언급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겠습니다.

5 □□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 오벳은 이새를 □ 6 이새는 다윗 왕을 □ 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 (마태복음 1:5-6)

여기에 우리아가 포함된 이유에 대해 약간의 논쟁이 있지만 그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것은 혈연 관계가 아닌 유일한 이름입니다. 왜 그를 언급할까요? 아마도 그가 이스라엘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방인을 향한 마음을 갖고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결코 그분의 구원 계획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가 얼마나 영웅적인 사람이었는지 유대인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포함시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큰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우리의 영웅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때 이스라엘인들은 이 헷 사람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전의 적이 자기 나라에 와서 이스라엘을 위해 용감하게 싸웠으나 그들의 가장 위대한 왕에게 배반당하고 살해당했습니다.

이제 우리아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Things we can learn

I have two comments to make on today's passage of scripture.
저는 오늘 성경 구절에 대해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1 Stand by what you believe
We have a term in British politics for a politician who constantly changes their mind on the issues of the day. We refer to them as being a “flip flopper.” This means that they change or “flip” to whichever view has the most support that week. Next week they may “flop” over to a completely different view-point. How can you support someone this weak-minded? Someone who is only doing what is popular and has the most public support. Obviously you cannot. Sadly modern politics is full of such people. Conviction politicians are a thing of the past.

No one would have accused Uriah of being a “flip flopper.” He knew what he believed and nothing could budge him from this. Maybe life may have been easier for him if he'd gone along and done what was expected. But to do so would have destroyed his integrity.

I wonder what we like are when it comes to our Christian walk? Are we “flip floppers” or are we strong and resolved like Uriah? I often talk about how weak and ineffective much of the church is today. A large reason for this is that it has forgotten where it is supposed to stand. It is supposed to stand firmly upon the inspired inerrant Word of God. This is our rock solid foundation. When we move away from this and seek to please the culture, be more relevant, or not be offensive we become “flip floppy.” The churches foundations become like jelly and just like with weak minded politicians people see through the deception.

They cannot respect or admire the church or Christians. So let us stand firm. Let us not compromise or alter our stance in order to fit in better, or not offend people. We should not go out of our way to deliberately hurt or irritate people. But the truth is the truth. May we stand courageously and without fear on what we believe.

1 자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십시오
영국 정치에는 현재의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마음을 바꾸는 정치인을 가리키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fli p flopper, 이랬다 저랬다하는 □□- 말바꾸기를 잘하는 □□"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그 주에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견해로 바꿉니다. 다음 주에는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변덕스러운 사람을 어떻게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대중들이 좋아하고 가장 지지하는 일만 하는 사람을 여러분은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슬프게도 현대 정치에는 그런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신념에 찬 정치인은 더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도 우리아를 "flip flopper"라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알았고 그 어떤 것도 그의 믿음을 저버리게 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했다면 삶이 더 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랬더라면 그는 그의 진실함integrity 을 잃었을 것입니다.

크리스챤으로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flip flopper"입니까, 아니면 우리아처럼 강하고 결단력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약하고 무능한 지에 대해 종종 이야기합니다. 가장 주된 이유는 오늘날 교회가 서 있어야 할 위치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영감받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견고한 기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세상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flip flopper"가 됩니다. 교회의 기초는 젤리처럼 되고 변덕스러운 정치인처럼 사람들은 그 속임수를 간파하게 됩니다.
그들은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야 합니다. 사람들과 더 잘 어울리고 그들의 기분을 상하게하지 않으려고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지 맙시다. 우리가 선을 넘어서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기분 나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진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 두려움 없이 용감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Be faithful to our band of brothers / sisters

I spoke during the sermon about the camaraderie that develops between men and women who serve together in the military. It creates an unshakeable bond that means they will often go to unbelievable lengths to protect and save one another.

Today we are all enlisted in God's army. Look around now and see your brothers and sisters in arms. Christ's faithful army is not limited by region or geography. We are global force. Wherever we may be our purpose is the same. Our commander orders us to go out and share the gospel message. This is our mission. Living here in Korea the battle is easy. We can "march" around and openly confront people lovingly with the good news. Sadly I think we have it too easy. The peace that surrounds us has made us lazy. But around the world other armies do not have it so easy. Their battle is raging hot. Casualty rates are high. Everyday is a fight with imprisonment, torture or death a very real possibility.

So we, living here in comfortable Korea are a little like Uriah at David's palace. There is nice food and drink to be had. How easy to forget for a while the men and women on the front line. Let's just indulge ourselves. Uriah reminds us that we should not forget those on the front line. Even if we cannot stand alongside them they should be in our constant thoughts and prayers. We should be supporting them with the things they need to keep up the good fight. May we never forget our faithful band of brothers and sisters.

2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충실합시다

저는 전우들 사이에 형성되는 동지애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이는 그들이 서로를 지키고 구하기 위해 종종 믿기 힘들 정도의 대단한 행동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군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위를 둘러보시고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충실한 군대는 지역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국제적인 군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우리 지휘관은 우리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기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전투는 쉽습니다. 우리는 "행진"하면서 공개적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 쉬운 것 같습니다. 평화로운 환경이 우리를 게으르게 만듭니다. 그러나 세계의 다른 군대에게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싸움은 뜨겁게 따오릅니다. 사상자가 많이 납니다. 매

일매일이 투옥, 고문, 죽을 수도 있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곳 평화로운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다윗 왕궁에 있는 우리아와 조금 비슷합니다. 맛있는 음식과 마실 것이 있습니다. 최전선에 있는 동료들을 잠시 잊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인가요. 그냥 마음껏 즐기자. 우리아는 우리가 최전선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잊어서는 안됨을 상기시켜 줍니다. 비록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할 수는 없더라도 그들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우리의 충실한 형제 자매들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